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을 따를까?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 동향과 시장 수익률 간 상관관계 낮아지는 추세
 다만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기관의 매수세와 더 높은 상관관계
 투자전략: 시장 관점에선 외인, 종목 관점에서는 기관 수급 지켜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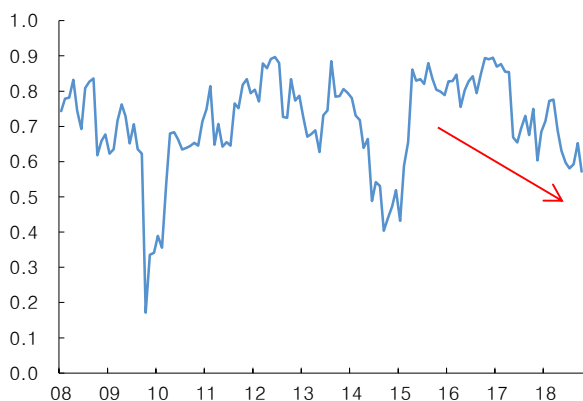
낮아지는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 수익률 간 상관관계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 유난히 민감한 지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 월별 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 간 상관관계수는 0.6~0.8 정도를 기록하며 더욱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난달 한국 증시 급락 요인으로 지목된 미중 무역분쟁이나 연준의 금리인상 등 역시 대외적인 요소다.

흥미로운 점은 작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코스피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0.6 전후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지만 하향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영국계 자금이 시장 수익률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다른 국가의 외국인 자금과의 상관관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독일이나 홍콩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올해 들어 잠깐이지만 코스피 월별 수익률과 음의 관계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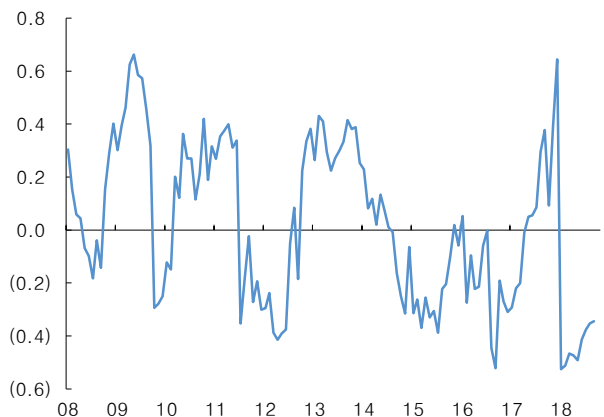
코스닥 역시 미국과 영국계 자금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올해 들어 코스닥 월별 수익률과 외인 순매수 간 상관관계수는 급격하게 음의 관계로 돌아섰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영국계 자금과 지수와의 관계가 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외국인 순매수=수익률 상승’라는 공식이 들어맞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림 1] 코스피 월별 수익률과 외인 순매수 간 상관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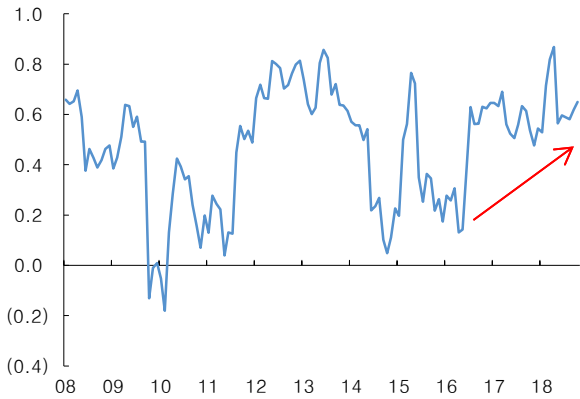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코스닥 월별 수익률과 외인 순매수 간 상관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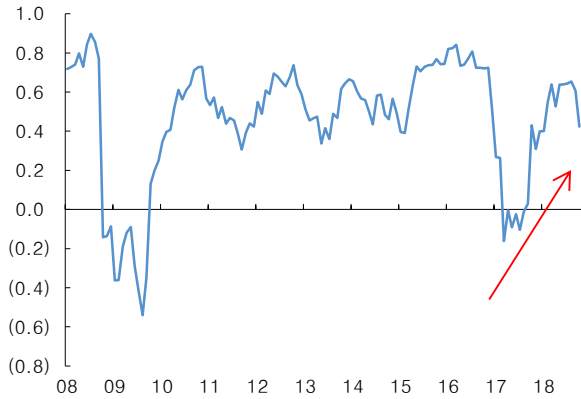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외국인인과 코스피 수익률과 상관계수: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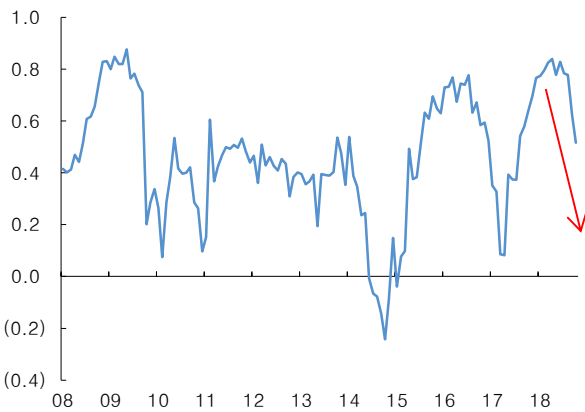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외국인인과 코스피 수익률과 상관계수: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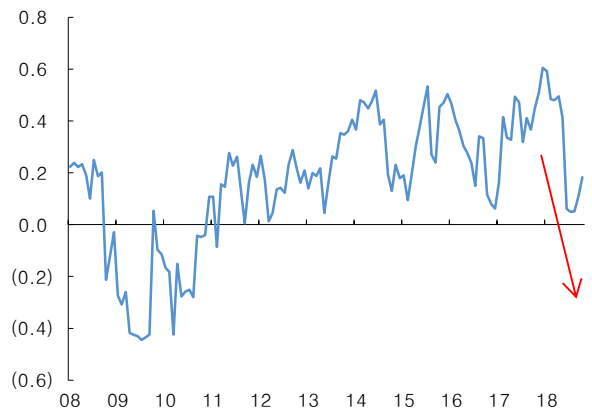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외국인인과 코스피 수익률과 상관계수: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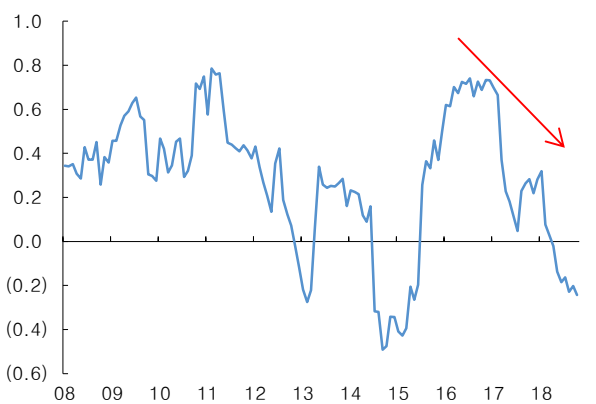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외국인인과 코스피 수익률과 상관계수: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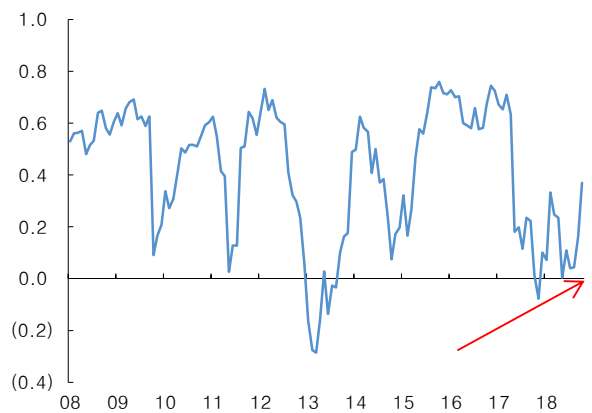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외국인인과 코스피 수익률과 상관계수: 홍콩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WiseF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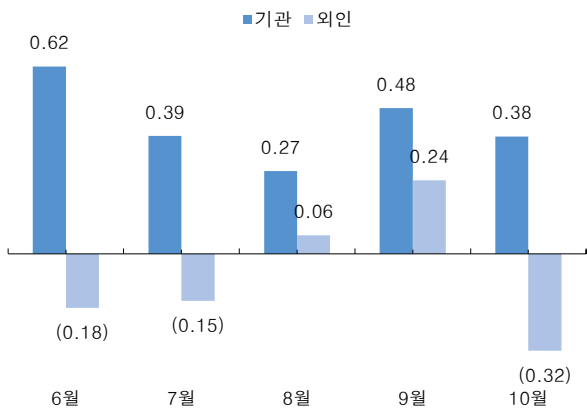
[그림 8] 외국인인과 코스피 수익률과 상관계수: 케이먼제도



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WiseF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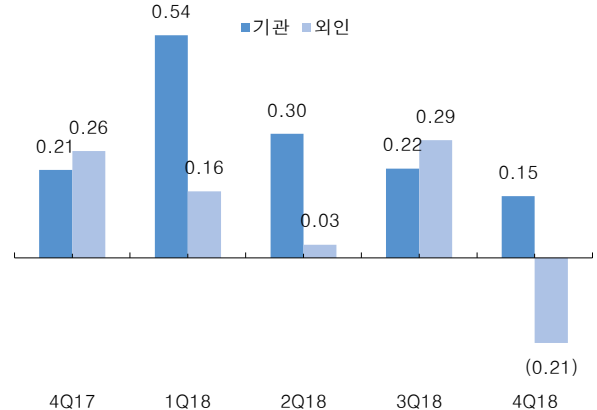
종목 관점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최근 들어 순매수 상위 목록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기관 순매수 상위 목록의 종목들이 대체로 더욱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외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종목 관점에서 기관 수급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림 9] 월별 순매수 상위 종목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



주: 상위 20개 종목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분기별 순매수 상위 종목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



주: 1. 상위 20개 종목 기준, 2.2018년 4분기는 11월 2일 순매수분까지 집계
자료: 금융감독원,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1> 2018년 9월 외인/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과 월간 수익률

(천주, %)

순위	종목명	외국인		종목명	기관	
		순매수	수익률		순매수	수익률
1	LG 유플러스	7,693	12.3	삼성중공업	10,465	13.6
2	삼성물산	5,240	6.2	대우건설	3,459	13.0
3	삼성엔지니어링	4,103	19.1	메리츠증권	3,268	8.2
4	팬오션	3,707	0.4	SK 네트워크	3,053	21.3
5	미래에셋대우	3,519	2.7	한온시스템	2,667	5.0
6	삼성중공업	3,092	13.6	DB	2,431	21.0
7	코웨이	3,004	(6.0)	KT	2,392	4.2
8	우리금융	2,989	3.3	이수페타시스	2,337	50.3
9	기아차	2,514	9.7	산한지주	1,874	3.9
10	SK 네트워크	2,425	21.3	NH 투자증권	1,836	7.1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2> 2018년 9월 외인/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과 월간 수익률

(천주, %)

순위	종목명	외국인		종목명	기관	
		순매수	수익률		순매수	수익률
1	SK 하이닉스	(12,677)	(11.3)	LG 유플러스	(5,819)	12.3
2	삼성전자	(6,654)	(0.2)	에프티앤이	(3,209)	(96.4)
3	에프티앤이	(4,290)	(96.4)	팬오션	(2,960)	0.4
4	오리엔트정공	(3,619)	4.8	웅진생크빅	(2,724)	(25.2)
5	케이피엠테크	(3,414)	4.1	제이콘텐트리	(2,700)	(6.7)
6	한솔홈데코	(3,274)	4.3	SK 하이닉스	(2,578)	(11.3)
7	SG 세계물산	(2,640)	(2.0)	우진아이엔에스	(2,415)	0.0
8	LG 디스플레이	(2,625)	(10.3)	제이준코스메틱	(2,284)	(4.6)
9	키위미디어그룹	(2,549)	(5.3)	세이브존 I&C	(2,121)	(2.3)
10	삼성전기	(2,537)	(10.6)	비에이치	(2,060)	(24.6)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